

Geopolitical Monitor

환율보고서, 중국 관찰대상국 유지했지만 비판은 지속

미국 환율보고서, 중국 관찰대상국 유지했지만 비판은 지속(US Treasury, 19.5.28)

- 미국 재무부, 반기 환율보고서 발표. 중국에 대해서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관찰 대상국으로 명시
- 관찰 대상국으로는 중국, 독일, 일본, 한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 국이 지정
- 작년 10월에 발표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었던 스위스, 인도는 제외
- 한국에 대해서는 3월에 외환 개입과 관련한 내용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재무부는 이러한 한국의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힘. 또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되면 다음에는 한국이 모니터링 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언급
-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는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개입 등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언급. 최근 인민은행의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그러나 과거 외환 시장 개입을 통해 위안화 저평가를 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음을 밝힘
-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최근 국자 통제 강화와 비시장적 메커니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보조금 및 기타 불공정 관행이 만연했다고 비판적인 모습을 보임

미국 국무부 대변인, 북한의 WMD는 유엔결의 위반(Reuters, 19.5.28)

-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전체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된다고 밝힘
- 그러나 오테이커스 대변인은 미국의 관심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평화로운 종결을 위한 협상 시도에 있다고 전달
- 트럼프는 북한의 행위가 위반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金正은 이목을 끌기 원했을 것이라고 밝히며 아직 핵실험, 탄도미사일, 장거리 미사일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북핵 프로그램 종료를 위한 거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힘
- 한편 북한은 불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무식함 그 이상'이라고 비난하고 미사일 실험을 포기하는 것은 자위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명

극우정당의 돌풍으로 마무리된 유럽 선거(FT, CNN, 19.5.28)

- 유럽의회 선거 결과 수십 년간 유럽 정치의 중심세력이었던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의 의석수가 크게 줄고, 포퓰리즘과 민족주의 세력인 녹색당과 극우정당의 의석수가 확대
- 중도 우파 EPP(유럽 국민당)와 중도좌파 S&D(사회당)가 통합 과반을 상실. 이는 EU예산, 무역, 국경 정책에 대한 협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폴란드와 헝가리 같은 나라들의 법치주의와 같은 논쟁적인 주제에 대한 복잡한 협상이 나타날 것으로 관측됨
- 영국은 EFDD(자유와 직접민주주의) 소속인 브렉시트당이 최다 의석인 29석을 차지. 프랑스는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이 22석으로 최다 의석 차지. 이탈리아는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이끄는 동맹이 28석으로 최다 의석을 차지함
-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극우 포퓰리즘 세력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질 것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며 이제 유럽은 '암흑 세력'에 대면해야 한다고 전달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